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38호 [루게 제25016호] 주제 104 (2015)년 8월 26일 (수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꽃바구니 진정

뜻깊은 선군절을 맞이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이시며 주체의 선군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고 있다.

25일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찾았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꽃바구니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앞에 놓여있었다.

당, 무택,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평양시내 각급 기관, 기업소, 공장, 학교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꽃바구니들의 덩기에는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계셨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함께 계신다》 등의 글자들이 적여 참가자들은 일찌기 혁명의 길을 창시하시고 선군정치를 위해 헤오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며 절세위인들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렸다.

김일성종합대학, 인민무력부, 인민보안부, 만수대장작사를 비롯한 평양시내 여러곳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과 태양상들도 각계층 군중의 물결이 끊이지 이어졌다.

각지의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도 자기 교장에 높이 모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아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걸으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열의에 넘쳐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선군절을 맞으며 전국의 전쟁로병들에게 선물을 보내시었다

우리 당의 각별한 사랑속에 혁명선배로, 나라의 보배로 떠날리우는 전국의 전쟁로병들은 우리 혁명투력의 강화 발전과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실현에서 사면적인 의의를 가지는 뜻깊은 선군절을 맞으며 또다시 크나큰 은정을 받아 안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올해 진승의 7.27을 맞으며 로병들의 성대한 경축대회를 마련하여주시고 그들에게 온갖 사랑을 다 돌려주신데 이어 오늘날은 대외참가자들만이 아닌 전국의 로병들에게 유익한 다식한 정이 어린 선물을 보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속속들이 숨겨져 있는 선물들마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주체조선의 승리전승을 창조하고 빛내여온 로병들이 로병들과 가족, 친척들은 세상에는 나라마다 로병들이 적지 않지만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신 우리 나라에서처럼 행복한 로병들은 없음을 다시금 절감하였다.

전국의 로병들은 자기들을 피로써 조국을 지킨 은인으로, 최후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계승자들의 데오에 조국결사투사의 맥통을 더해주는 훌륭한 혁명선배, 교양자로 높이 내세워주시며 날이 갈수록 더욱 뜨거운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삼가 올리였다.

그들은 선군혁명의 한길에서 우리 당의 명도를 순결한 망심과 의리로 받들

어은 전승세대의 긍지와 영예를 빛내이며 가장 값높은 인생의 영광을 누리려는 무한한 행복감에 휩싸여있었다.

로병들과 가족, 친척들은 세상에는 나라마다 로병들이 적지 않지만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신 우리 나라에서처럼 행복한 로병들은 없음을 다시금 절감하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김정일동지께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 숭고한 경의 표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55돐에 즈음하여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이 25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김일성동지, 박봉주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과 평양시인의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 당, 정권기관,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는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뒤편에는 당기와 공화국기, 군기들이 세워져 있었으며 조선인민군 특군, 해

군, 항공 및 방항공군, 로동적 위군명에 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뒤편에는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존함을 모신 꽃바구니가 놓여있었다.

또한 조선인민군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놓여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뒤편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명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꽃바구니의 덩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자가 적혀있었다.

참가자들은 독창적인 선군혁명령도로 사회주의위업실현을 위한 투쟁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오시였으며 인민의 행복을 위한 만민노예를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뒤편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그들은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에 들어섰다.

또 한편의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어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기상은 만방에 빛나고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위대한 새 승리가 더욱더 높고

【조선중앙통신】

청년강국의 위용드높이 백두산총대로 최후승리를 앞당기자

조선인민군 군인들 결의모임 진행

모임에서는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 조선인민군위원회 위원장 리창진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선군절과 청년절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 49(1960)년 8월 25일 조선인민군 군위 서울류경수제 105광산사단에 선군혁명령도의 거룩한 첫 자욱을 새기신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선군혁명위업계승의 새시대, 총대중시와 청년중시가 하나로 결합되고 총년 청년전위들이 앞장서서 혁명과 건설의 돌과돌을 열어나가는 력사적시대의 탄생은 온세상에 알린 뜻깊은 사면이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오늘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은 청년강국의 새 력사를 펼쳐나가고 계시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령도에 의하여 최후승리로 줄기차게 이어지고있다고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깊은 관심과 사랑속에 조선인민군 제5차 훈련군대대회와 제4차 전국로병대회에 인민군대의 청년일군들이 참가하고 조국해방 70돐을 맞으며 또다시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담사함으로써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락바람정신과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이 군인들의 심장마다에 더욱 역세게 간직되었다고 말하였다.

보고자는 전체 인민군군인들의 다함없는 총성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와 김정일대원수님께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렸으며 총대의 위력으로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을 빛나는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렸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한평생 선군혁명령도의 길에 계시면서 이끌어 마련해주신 선군의 총대를 더욱 역세게 틀어쥐고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며 이 땅위에 통일된 강성국가를 일떠세우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입니다.》

보고자는 모든 인민군군인들이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품

속에서 값높은 삶을 누리려는 혁명가담에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수하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모든 인민군군인들이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와 금수산태양궁전을 결사옹위하며 오직 당이 가리키는 한길로 곧바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당의 믿음직한 최후대, 돌격대가 되어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각급 청년동맹조직들과 일군들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말씀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며 전군에 5대교양을 강화하고 백두산총대들이 더욱 세차게 휘몰아치게 하는데서 도화선이 되고 꺼지지 않는 불길이 될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모든 인민군군인들이 항일혁명선열들과 전하의 영웅전사들이 지녔던 혁명정신으로 김일성-김정일전략술과 완벽한 실천능력, 백발백중의 사격술, 무쇠같은 체력을 소유한 일당대의 싸움군으로 역세게 준비해나갈데 대하여 말하였다.

비례와 그 추종세력들은 감히 우리의 최고존엄을 훼손하며 무모한 핵전쟁행위로 우리의 위업을 약탈하게 도전해나서고있다고 하면서 우리 군인들은 무

서온 반미보복업기로 청춘의 피를 떨칠 줄이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이러 군관들이 김철민, 김승현, 사판달민 박금선, 정종삼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토론자들은 수령결사옹위, 백두산총대로 침략의 무리들을 쳐도 없이 몰아당겨버리고 선군혁명최후승리의 붉은 기발을 떨릴 휘날려나갈 굳은 맹세를 다지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낭독되었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낭독되었다.

모임이 진행되는 동안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총대로 굳건히 받들어나가며 전군이 수령결사옹위의 총독원이 되어 원수적렬의 선전에 영웅적위훈을 떨쳐갈 의지가 담긴 구호들을 힘차게 외쳤다.

모임은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라!》로 노래주악과 합창으로 끝났다.

이날 인민군군인들은 백두산혁명강국의 전투적기백이 차넘치는 예술공연을 관람하였으며 승리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흥겨운 무도회도 열렸다.

【조선중앙통신】



사랑하노라

작사 리혜정
작곡 설대성

정서적으로 (♩=72)



1. 아침 저녁 아이들의 노래 소리 즐거움고



파릇한 정-넙치여 화목한 가정



소중한-보금자리 나의-집이여

2. 매일 위해 바치는 땀 열매되어 무르익고

솟구치는 열정은 기적을 낳네
창조로 보람넘친 나의 일터여

3. 사람들은 서로 위해 모든것을 바쳐가고

마음합쳐 이 땅을 가꾸어가네
떠나선 살수 없는 우리의 락원

4. 은혜로운 햇빛 넘쳐 눈부시게 밝은 나라

그 미래도 찬란한 태양의 나라
위대한 나의 조국 사랑하노라

태양의 축복속에 선군조국은 무궁번영하리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선군의 조국땅에 새날이 밝아왔다. 8월 25일, 내 조국의 선군절을 금수산태양궁전광장 취재길에서 보내는 우리의 마음은 흥분과 감동으로 넘쳐있었다. 천만년 길이 번영할 집합성, 김정일조선의 번영 앞길에서 열려지는것이인가. 주제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의 광장대문이 활짝 열렸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계시는 태양의 성지로 뜨거운 격정을 안은 인민군인들과 각계군 로자, 청소년학생들의 물결이 활짝이 굽어쳐흐르고있었다. 뜻깊은 명절들을 맞을 때면 강위력한 우리 조국을 세워주시고 인민의 행복한 삶을 꽃피워주시기 위대한 수령님들이 그리워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마음달려 오지만 이태의 선군절을 맞으며 태양의 성지를 찾은 군민의 마음은 류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금수산태양궁전은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태양의 집이며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그리움의 대화가 끊임없이 흐르는 주체의 최고성지입니다.》**

태원수빌 빛나는 돌레문, 돌레문을 지나며 그 태원수빌을 보는 군민의 눈빛에는 하얗은 생각이 담겨있는듯. 어찌 그렇지 않랴. 돌이켜보면 우리 조국은 그 얼마나 시련에 찬 력사의 길을 헤쳐야 했는가.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천만군민을 이끄시여 백전백승의 력사, 위대한 승리의 전승을 이룩하시었다. 선군은 조국의 존엄과 평화를 지켜주고 기적의 현실을 펼쳤으며 인민이 누린 천만가지 복을 이 땅에 뿌려왔다.

선군절을 맞으며 성지를 찾은 수많은 사람속에 창조와 건설의 통용속에 조선속도를 창조해가는 건설자들도 있었다. 높은 과학성과 세계를 앞서나가는 불타는 열의에 충만된 머리 흰 과학자, 새 세대를 위한 과학자

들도 있었다. 조국의 미래를 가꾸어가는 현역사인 교육자들도 있었다. 공부를 잘하여 5점짜 활짝 피워가는 우리의 학생들과 미더운 대학생들도 보였다.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를 지켜가는 인민군인들의 몸품한 모습은 그 얼마나 미더운가. 우리는 가족과 함께 성지를 찾아온 모란봉구역에서 시는 리원선동무를 만났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역사의 시련속에서도 선군으로 단란을 헤쳐가고 선군으로 존엄을 누리 조국이 아닙니까. 정녕 선군절을 맞고보니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고마움으로 가슴벅차오름을 금할수 없습니다.》**

이것이 어찌 그의 심정만이라. 선군의 기치를 높이 휘날려 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생각으로 감회가 깊었다. 만장대문의 투철한 혁명적 신념과 의지가 깃들여있는 두자루의 권총을 유산으로 물려받으시고 《E, C》의 기치를 높이 드신 때로부터 혁명과 건설을 영도하여 오신 전과정에서 총대중시, 군사중시의 사상을 일관하게 견지하신 우리 수령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적 무장력에 의거하여 조국해방의 역사적 위업을 이룩하시고 건당, 건국위업도 수행하시였으며 두차례의 혁명전쟁과 두단계의 사회혁명을 이끌어오시였으며 강력한 군사력에 의거하여 온갖 원수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사회주의를 굳건히 고수해오시었다.

우리 수령님 걸으신 이 력사의 길이 자신께서 모든것을 다 바쳐 이어나가셔야 할 길이라는데는 의심이 없기 위대한 장군님의 심장에 굳게 자리잡은 확고부동한 견해였고 필장이었다. 선군혁명적 기복한 세계가 푸른 하늘, 푸른 바다, 푸른 대지가 얼마나 력력히 새겨졌던가. 우리는 잊지 않는다. 주제 49(1960)년 8월 25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인민군 군위 서울류경수 제 105부대에 선군혁명명도의 첫 자욱을 새기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는 이이께서 지난 기간의 정치적

성장과정을 통하여 간직하신 총대중시, 군사중시의 신념과 선군주의의 발전이였으며 선군혁명명도의 시작을 알리는 력사의 선언이였다. **《메사로운 날이 아니었다. 10대의 젊음과 기상이 온 누리에 빛받쳐갔다. 우리에게 한 시인의 시구절이 떠올랐다.》**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헌신의 선군절주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며 이 땅의 길이란 길 명이란 명을 다 넘으신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 ...

더듬어만 보아도 우리 마음 승업해졌다. 우리 장군님의 전선길에 수놓아진 천가지, 만가지 사연이 눈앞에 어려웠는데도싶었다. 우리는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손영남동무도 만났다. **《행복의 보금자리인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에서 사는 그였다.》**

《메로부터 신로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하는 일하고 임금은 편안하게 지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장군님의 선군혁명 일파에는 자신과 가정을 위한 생활이란 순간도 없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가슴뜨거워짐을 금할수가 없었다.

선군혁명의 길에 인생의 좌표를 정하고 시작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일파는 어느 하루 편안한 휴식도 없이 초진장소에서 이진한 헌신과 로고의 혁명일파였다. 매일과 같이 인민군부대와 인민경제 여러 단위들의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니 수백리 강행군을 하시고 수시로 제기되는 수많은 크고작은 일들을 처리하시니라. 낮과 밤이 서로 없이 집무에 전신전망시 순간의 잠에 드셨다가도 자신께서 잠시라도 쉬면 조국의 전진이 그만큼 빠진다는 생각에 다시 일손을 잠입시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잊지 못할 추억속에 우리는 공원의 한곳에 이르렀다. 각이한 모양으로 뿔어져나오는 분수들과 아담하게 꾸러진 휴식터, 푸른 일 쉼터는 갖가지

나무들과 울긋불긋 아름답게 피어난 꽃들, 푸른 주단을 펼친 잔디... 위대한 수령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리고 공원에서 휴식을 하는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도 눈에 띄었다.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선군절이다.》**

혁명의 총대로 강성국가건설을 억척같이 담보하는 인민군인들의 심정은 더더욱 뜨거웠다. 조선인민군 군관 오홍욱동무는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태양의 성지에서 선군절을 맞는 저의 결의입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선군혁명명도의 길에 계시면서 마흔해 주신 선군의 총대를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건질것을 수호할 것입니다.》**

사기들의 초소를 찾으시여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기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을 우리 푸른 그늘의 심정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랴. 어느덧 시간은 흘렀다. 그러나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 오고 갈이치는 사람들의 물결은 끊임없이 흐른다. 그들의 심정속에 새겨져 고동치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만이 아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선군주의의 위대한 력사를 최후승리로 이어놓을 불같은 열의였다. 이 심정의 목소리가 어찌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만 울려 퍼지랴고 하랴.》**

은 나라 방방곡곡에서 승리의 승리와 자부심, 매일에 대한 확신을 안고 우리의 천만군인이 경사로운 선군절을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의 사상과 명도에 무한히 충실한 백두산혁명장군은 조국보위, 사회주의건설에서 전선에서 혁명의 주력군으로서의 영예로운 본분을 다할 불같은 열의에 넘쳐났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어 최후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주체의 최고성지의 하늘은 력사의 의지, 천만군민의 의지를 새겨가고있었다. **《본사기자 김철혁》**

뜻깊은 기념사진들

주제 85(1996)년 11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인민군 관문전대교를 시작하시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판문점의 여섯을 돌아보시는 속에서도 최전연의 사랑하는 경우 판문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었다. 작별의 총기가 도사리고있는 판문점으로 말하면 언제 어떤 위험한 정황이 발생할지 가늠하기 어려운 전연치고도 최전연이었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 판문점의 경우판문을 한사람이라도 빠진새라 모두 만나주시고 근무성원들을 포대시키면서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품에 안겨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는 경우판문들은 손을 높이 흔들고 발을 구르며 소리없는 《만세!》의 웨침으로 그이를 환호하였다. 잊지 못할 그날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시고 기념사진을 찍어 주신 우리 장군님의 천출위인상은 오늘날도 천만군민의 심금을 뜨겁게 울리며 활짝이 전해지고있다.

어느날 5월 맑고 시원한 최전연 고지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군사임무수행행은 구체적으로 로해하시며 병사들의 생활을 따듯이 보살피주시었다. 그러시고도 무엇이 부족하진 못 시간이 있으면 이 고지우에서 전투임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의 초소를 다 돌아보고싶은데 그렇게 할수 없는것이 유감이라고 하시며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시었다. 잠시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행한 장병들을 둘러보시며 동무들이 군인들과 근무를 교대하고서라도 이 고지우에 있는 군인들을 다 데려와야 하겠다고, 군인들을 한명도 빠짐없이 데려와 만나보고 기념사진을 찍자고 다정히 이르시었다. 이렇게 되어 최전연고지의 초소들에서는 군인들과 장병들이 에 전례없는 보초근무교대가 이루어졌고 병사들에 대한 우리 장군님의 다정한 사랑을 전하는 또 하나의 뜻깊은 기념사진이 선군혁명사의 한페이지에 남게 되었다. **《본사기자 림정호》**

주제 99(2010)년 10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주의의 혼신을 보여주셨다. 혼연에서는 사회주의 조국을 건설할것이 사수할 목적의 투지로 총만된 백두산혁명장군의 단호한 결심과 무자비한 타격력을 잘 보여주셨다. 혼연에서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위력을 힘있게 파시한 부대의 군인들을 높이 평가하고 감사를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이날 주제적군건설의 최전성기를 펼쳐가시는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을 한 자리에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은 부대의 군인들은 백두의 천출명장들을 우러러 목청껏 감격의 환호를 터치었다. 부대의 군인들이 백두의 천출명장들을 우러러 터친 감격의 환호,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을 영연히 받들어 주체의 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해갈 수령정사용위정신이 터친 신념의 배아리였다. **《본사기자 림정호》**

선군문화의 창조자, 선도자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백두의 혁명강군으로 자란 인민군대는 우리 혁명의 핵심부대, 주력군으로서 사회주의수호전과 사회주의건설투쟁의 어렵고 중요한 초소마다에서 기적과 위훈의 창조자로, 선군문화의 창조자, 보급자로서의 영예를 높이 떨치고 있다.》**

주제 98(2009)년 6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느 한 군부대 지휘부를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부대의 전투력강화를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는 그의 시야에는 아담하게 꾸러진 군관살림집구역이 선군시대의 뜻을 자랑하며 인격들었다. 이 고장 사람들이 선군군인사예이라고 부르는 살림집들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살림집구역 을 돌아보시면서 살림집면적과 내부 구조를 표본화하여 서로 다르게 한

것도 잘하였다고, 군관살림집들의 메탄가스화를 실현하고 때 세대들이 집주변에 파인나무들을 심고 가꿀때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유언도 훌륭히 관철하였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었다. **《그들이 우리들은 일군들의 가슴은 뜨거워우른다.》**

인민군대가 살림집건설에서도 선군시대의 본보기를 창조하고있는 것이 그러도 기쁘시여 거듭 축하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군관살림집을 선군군인사예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생각에는 군인문화주택이라고 하는것이 더 좋을것 같다고, 지금까지 동촌문화주택이라는 말은 있었어도 군인문화주택이라는 말은 없었다고 정을 담아 이야기하시었다. **《군인문화주택!》**

몇번이고 끝어외워보며 탄성을 올리는 일군들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 군인문화주택이라는 말은 선군시

대가 낳은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시대이라고 하시었다. 선군시대가 낳은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시대이-군인문화주택, 오늘날의 격동적인 시대에 우리 장군님께서 명명해주신 시대들이고 그 얼마이던가. 혁명적군인정신, 혁명적군인가정, 혁명적군인문화...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는 선군문화의 창조자, 선도자이것 만큼 살림집을 꾸리는데서도 음당 사회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뜻깊은 당부를 남기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손길에 무적장군의 위용을 남김없이 펼쳐가고있는 우리의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오늘날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유언을 받드는 길에서 선군문화의 창조자, 선도자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리금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나이제리아연방공화국 특명전권대사를 만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2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작별담

문하여온 은위계 알렉산더 주조 나이제리아연방공화국 특명전권대사를 만나 담화를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여기에는 신홍철 외무성 부상과 나이제리아대사관 성원이 참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화를 복으로 전환시킨 보검

오늘도 세상사람들은 우리의 선군정치를 두고 이렇게 목소리를 합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치신 선군정치는 총대를 앞세우고 혁명과 건설전반을 백전백승으로 이끌어가는 만능의 보검이라고. 그러나 선군정치라는 용어가 세상에서 생겨났을 때 군사신행의 원칙을 누가 다 이해했겠는 아니었다. **《선군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이고 혁명실천이였으며 장군님의 정치리념이고 정치방식이였습니다.》**

언제인가 우리의 한 일군을 찾아온 어느 한 나라 대사관관관은 조선이 오늘날의 난국을 타개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자면 경제사업을 주재해야겠는데 어째서 인민군대사업에 더 큰 관심을 돌려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후의 나날들에 우리

가 눈부신 성과를 거두는것을 보고 그는 선군정치야말로 조선인민이 받아들인 행운이라고 격정을 터치었다. 백두의 선군명장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드시고 드림없이 내세우신 군사신행의 원칙, 이것은 최고의 조국으로, 최상의 인민사상이었고 패승의 원칙이였다. 사실 고단의 행군, 강행군은 우리 조국과 인민에게 있어서 일찍이 겪어보지 못하였던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시련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팔고 가신 슬하의 천만자식들이 겪는 고통과 시련은 한 나라 대사관관관은 물론 위대한 장군님의 그 아드셨던 마음은 당시로서는 누구도 이해할수 없는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가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온갖 도탄과 침략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이기 위하여서는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라도 인민군대를 강화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동무들은 내가 왜 나라의 경제형편이 어렵지만 인민군대를 강화하는데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공장이나 농촌이 아니라 인민군부대를 끊임없이 현지지도하라는가 하는것을 특별히 알아야 합니다. 나라의 경제형편이 어렵다고 하여 인민군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 인민이 제국주의식민지노예의 운명을 면할수 없습니다라고 교시하시었다. 변함없는 선군신념을 안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절명파 오성신, 판문점과 351고지를 비롯한 천리방신의 초소들을 찾으시었다.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그 건설전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믿음과 사랑의 건설을 끝없이 꽃피우시었고 온

사회에 총대중시의 기풍이 차탄치게 하시었다. 그날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특특히 깨달았다. 총대는 혁명승리의 만능보검이며 강한 군사력이 안받침되어야 부강한 경제강국도 있다는것을 메루로 느꼈다. 령도자의 사상과 신념, 의지로 무장한 군민의 힘은 무한대이다. 백두명장의 선군사상을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 군사신행의 원칙을 확고히 고수하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역경은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었다. 그렇다.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가 있었기에 우리 혁명은 력사의 온갖 풍파를 뚫고 승승장구하여 오셨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과 창조강군정신이 있어 우리 군대와 인민은 강하게 알지 못하는 력사의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다. **《본사기자》**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혁명명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56수에 즈음하여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이 25일 쌍운리혁명사적지를 참관하였다. 김정일동지, 박봉주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과 평양시인민회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 당, 정권기관, 내각, 근로단체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주체의 선군혁명사에 뜻깊게 아로 새겨진 영광의 고장을 찾은 참관자

들은 주제 49(1960)년 8월 2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당시 이곳에 자리잡고있던 조선인민군 군위 서울류경수 제 105부대 지휘부를 현지지도하시며 선군혁명위업의 드림없는 계승과 선군혁명도의 새 출발을 선언하신 백두명장의 천출위인상이 어려와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참관자들은 당과국가의 책임일군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영상을 모신 유화작업을 꽃다발들을 진정

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사적비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그들은 우리 혁명무력의 장화발전에 쌓인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위업을 뜨겁게 되새겼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명도업적의 길이 빛어갈 천만군민의 드림없는 신념에 떠날때면 건립된 현시비와 현지지도표시비, 혁명사적묘양상을 돌아보면서 수령의 군대, 당의 명도로 굳지높은 백두산혁명장군의 영광

넉넉 행로에 아로새겨진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불후의 현신과 로고를 심상마다에 건지하였다. 참관자들은 잊지 못할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아적시사를 하신 나리바위에 대한 해설을 통하여 천만군민의 가슴속에 눈물겹게 새겨진 제기밭의 력사가 바로 선군혁명명도의 첫날부터 시작되었음을 절감하며 유서깊은 바위에서 오래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하였다. 그들은 백두산전설위인들의 뜻깊은 사적이 깃들여있는 쉼터와 부대장살림집, 구본대의 병실과 식당, 교양실과 향적창고 등을 돌아보면서 군건설과 군인생활향상을 위해 모든것을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성스러운 선군혁명명도의 자욱자욱을 더욱 깊이 새기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적으로 사수한자!》라는 구호가 새겨진 군인회관 앞에서 참관자들은 혁명의 년대들마다에 수령정사용위, 단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든 사상과 신념의 강군, 선군혁명의 여척의 지지점인 인민군대에 있기에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는 반드시 이룩되리라는 확신으로 가슴 불태웠다.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선군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오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마라 조국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오늘날의 총공적에서 기술, 전위투사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갈 열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백두령장의 선군혁명사상과 업적 천추만대에 길이 빛내여가리

각지에서 선군절 55돐을 성대히 경축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필승의 신심드높이 조국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에서 영웅조선의 불굴의 기상과 위용을 만반에 펼쳐가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명도를 시작하신 55돐을 성대히 경축하였다.

주체의 군건설과 부강조국건설에 획기적인 리성포를 아로새긴 결사로운 명철을 맞이한 전국의 방방곡곡에서는 성스러운 선군혁명실적을 수놓으시며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앞에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린 불세출의 선군명장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차고넘쳐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선군의 가치를 변함없이 높이 추켜들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이며 철석같은 의지입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광장으로 사람들의 물결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건한 마음이고 광장공원에 들어선 선군들은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의 개척자이며 탁월한 령도자이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올리였다.

그들은 력사상 처음으로 선군혁명

3중주 《백두의 발발곡소리》 등의 종 목들이 울렸다.

출연자들은 주체의 선군위업의 위대한 개척자이신 김일성동지의 선군혁명사상을 굳건히 계승하여 년대와 세기를 넘어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에도 꽃이 이어놓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성스러운 선군 혁명실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자랑도에 술잔 예술인들이 부른 《선군을 노래할 때》, 《동에 반쪽 서에 반쪽 펼쳐산기이다》, 《인생의 영광》, 《선군승리 용해야》를 비롯한 노래들은 관람자들로 하여금 위대한 선군의 마지막시기까지 선군장정의 길을 걸고걸으신 어버이장군님의 헌신과 로고를 다시금 되새겨보게 하였다.

선군의 위력으로 강성국가건설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시고 부강조국건설의 든든한 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생애를 감명깊게 형상한 평안북도 녀원들의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황해북도예술선진대 예술인들의 정속공연 《당중앙을 복속으로 사수 할라라》를 통하여 관람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한마음한 뜻으로 굳게 뭉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힘을 당할자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는 진리를 새기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으로 지켜주시고 물려주신 고귀한 유산인 우리의 사상

선군절 55돐 경축 청년학생들의 무도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명도를 시작하신 55돐경축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25일 각지에서 진행되었다.

개선문, 평양체육관광장을 비롯한 수도의 무도회장은 위대한 선군명장들을 높이 모신 백두산대국의 위력을 총폭발시켜 세기와 년대를 이어온 반미대결전에서 최후 승리를 기어이 이룩할 필승의 신심 승리만을 이룩해나갈 청년학생들의 혁명적기개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세포지구 측산기지건설장을 비롯하여 각지의 기관, 기업소, 공장과 농장들, 건설장에서 다채로운 체육문화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날 전국의 방방곡곡에 펼쳐진 청년학생들의 경축무도회가 명절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위대한 선군대양의 성스러운 혁명업적을 되새겨보며 씩씩하고 생기발랄한 춤출음을 펼쳐가는 청년학생들의 열광마디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힘찬 발걸음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어 10월의 경축광장을 향한 대고조전에서 선군정년전위들의 위용을 남김없이 펼쳐갈 맹세가 어 려되었다.

각지에서 진행된 정속행사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철옹같이 굳은 선군혁명만리길을 끝까지 걸어가자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의지를 뚜렷이 과시하였다.



청년학생들은 전인미답의 힘찬 선군길을 헤쳐서 우리 조국을 세계적 인 정치군사강국, 불패의 사회주의 보루로 전변시켜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되새겨 보며 노래선율에 맞추어 춤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김일성종합대학 국제학술토론회-2015 참가자들 꽃바구니 진정

김일성종합대학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25일 김일성종합대학 국제학술토론회-2015 참가자들

김일성종합대학 국제학술토론회-2015 개막

김일성종합대학 국제학술토론회-2015가 개막되었다.

《과학발전과 문명국건설》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수십건의 가치있는 학술논문들이 발표되게 된다.

토론회 개막식이 25일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진행되었다.

개막식에는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과 중국의 인민대학대표단, 연변대학대표단, 남경대학, 베이징대학, 단야르 판데야르알고르들렌버, 미국 뉴욕종합대학, 벨지크 브뤼셀자유종합대학, 영국 에드워드대학 대표자들이 참가하였다.

개막식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 부총장 리국일이 개막연설을 하였다.

연설자는 수학, 의학, 생명과학과 농학은 인류사회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학문들이며 이 과학분야를 새로운 높이에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인류의 문명을 촉진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총대로 지켜가는 우리의 미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사상인 선군혁명사상에 의하여 우리의 힘, 우리의 총대로 조국의 존립과 인민의 자주성, 사회주의전취투를 믿음직하게 지키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민족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백두에서 시작된 조선혁명의 역사는 선군의 총대로 조국의 미래를 지켜낸 투쟁의 역사였다.

우대들의 밝은 웃음, 혁명의 찬란한 태양을 그려보며 차디찬 감방속에서도 신념과 지조를 굽히지 않았던 항일의 선열들과 아이들의 행복의 희망을 짓밟은 원수에 대한 괴롭힘의 증오를 안고 육박전에 나간 전사의 용사들,

사회주의건설의 년대들마다에서 위훈을 떨쳐온 수많은 영웅들의 심장마다에 간직되어온 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사랑이었다.

지금도 우리의 기억속에 뚜렷이 남아있다.

고난의 준엄한 년대에 한 인민군병사가 나라 친만군인의 가슴속에 새겨준 글발이.

《미래를 위하여 고난의 마지막 1997》

우리 인민이 그리고 피어던 고난을 꽃이 이겨낼수 있게 한 힘의 군보이 무엇인가를 새겨주는 이 글발을 우리 장군님께서

시인은 이 나라 녀인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백고파 우는 아기를 팔때본적은 있어도 피땀은 파편에 숨긴 아이들을 붙안고 기절해버린 어머니가 있었는가.

20여년전 7월의 하늘길에 고고성을 울렸던 장원평의 세쌍둥이가 이제는 어엿한 병사로 자라난 오늘의 현실에서, 조국 땅 가는 곳마다에 일떠선 아이들의 궁전마다에서 들려오는 한희로운 웃음속에서 가슴뜨겁게 받아안는것이 바로 선군의 교마음이 아니던가.

그 누가 새 마음 몰라봐도 희망이 이 길을 가고자리라 굳은 결심 다지실 때고 그이의 마음을 제일 아프게 해준것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사랑받지 못하였던 아이들에게는 파로움이 아니던가.

이 나라의 어머니들이 아이들의 밭고투에 벌건 죽물을 담아주며 눈물을 흘릴 때 배를 짊어주는 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사랑이었다.

지금도 우리의 기억속에 뚜렷이 남아있다.

고난의 준엄한 년대에 한 인민군병사가 나라 친만군인의 가슴속에 새겨준 글발이.

《미래를 위하여 고난의 마지막 1997》

우리 인민이 그리고 피어던 고난을 꽃이 이겨낼수 있게 한 힘의 군보이 무엇인가를 새겨주는 이 글발을 우리 장군님께서

당의 인민사랑, 후대사랑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각지 인민보안원들과 조선인민내무군 군인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인민사랑, 후대사랑의 숭고한 뜻을 배에 새기고 우리의 미려운 인민보안원들과 조선인민내무군 군인들이 인민들을 위하고 후대들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찾아 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누구나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야 하리라.》

조여명 어디에서 인민을 천부도, 천철옥으로 여기고 인민들의 마음속에 맺혀있는 문제, 생활상에서 스스로 맡아 풀어야 하고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운명을 결정하는 후대교육사업을 적극 도와주고있는 인민보안원들과 조선인민내무군 군인들이 아름다운 소명을 널리 전 하고있다.

지난 2월 개천시 흥진동 2인민반에서는 사람들의 가슴 후덜덜 하는 감동깊은 광경이 펼쳐졌다.

이곳 인민반에서 사는 김금주 동무는 부를 위해 한평생 동무들을 버린 개천시인민보안사 애매단위 인민보안원들이 결혼상을 차려주었다는 것이다.

자기들에게 성실성의 결혼상을 차려주고 헌액메달과 식량을 안고와 행복을 축복해주는 한평생 동무를 비롯한 인민보

안원들은 판매주인들이 뜻밖의 회색사고로 불행을 당하였을 때에도 해당 부문 일꾼들과 힘을 합쳐 반죽하게 새 집을 지어 주었으며 새집들이하는 날에는 자기들이 마련한 헌액메달과 혼과 여가치 부엌예간들과 가정용품들도 가져다주었다. 지난 4월에도 한평생 동무들의 원아들을 위하여 각종 문화용품들과 내의, 신발 그리고 예자를 마련해준 것이다.

남포시인민보안군 애매단위 일꾼인 리정남동무는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업적이 깃든 통장군 애원교과총과를 전신으로 도와주고있다.

다섯 해 전 8월 어버이수령님께 보내주신 교사용트랙터의 만가공을 위해 수많은 부속품들과 연유, 트랙터도르른기술을 배우는데 필요한 참고도서들을 마련하여 보내준 때로부터 그는 단위 총일원들과 함께 뜨거운 온정집든 트랙터와 편견차를 세것처럼 일신시켜주었으며 지난 5년동안 많은 교육기자재, 물자와 설비들을 마련하여 영광의 학교의 후대교육사업에 적극 이바지 하였다.

조선인민내무군 리춘재소속부대 지휘관, 군인들이 주둔지역 인민들을 천사, 천혈의 정을 다해 위해주고 후대교육사업을 성실성으로 도와주고있다.

조병식, 리춘재동무를 비롯한 부대책임일꾼들은 언제나

관, 병사, 종업원들은 세뼌트와 목재, 유리와 타일 등 많은 건설자재들을 마련해가지고 주둔지역의 교과총과로 분포로 달려가 교사를 번듯하게 꾸려주었으며 6대의 영동텔레비전, 2대의 컴퓨터, 수십종의 교구비품들을 갖추어주어 교육환경을 몰라보게 개선시켜주었다.

조선인민내무군 원덕소속부대 지휘관, 병사들도 새 학년도를 맞이하며 주둔지역의 초급중학교에 5대의 휴대용컴퓨터와 액정텔레비전을 비롯한 교육기자재들과 교구비품들을 마련해주었다.

이밖에 연산군인민보안사 일꾼인 송호철동무와 황주군인민보안사 일꾼인 박동철동무, 사리원시인민보안사 애매단위 일꾼인 리정서동무 그리고 조선인민내무군 김병복소속부대 군관 김철해동무를 비롯한 인민보안원들과 조선인민내무군 군인들이 인민들과 후대들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찾아하여 그들도 두가 당의 뜨거운 사랑과 사회주의제도의 고마움을 실감으로 절감하게 하였다.

인민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 주는 이런 아름다운 소행들은 당과 수령이 바라는 일이라면 한몸바쳐 해내고야마는것을 체질화하고있는 우리 인민보안원들과 조선인민내무군 군인들의 고상한 정신세계의 훌륭한 발현이다.

명심한 그들은 10점보다 넘는 양묘장을 당정책적요구에 맞게 번듯하게 꾸러놓고 꽃밭과 같이 아름답게 가꾸고있다.

창성이 끝나후, 전나무, 황철 나무와 같이 수종이 좋고 경제적이거나 나무모를 정성다해 키우기 위하여 있는 힘껏 지혜를 다 쏟아부었다. 몇년전부터는 지평생의 투쟁기풍으로 생당숙을 비롯하여 이 지대에 흔한 식물들을 가지고 식물성농약을 만들어 나무모비판리에 리용하고있는데 그 우월성이 날이 확증되고있다.

올해 레넨에 없는 가을이 지속될 때에는 너도나도 떨쳐나 여러개의 꽃밭을 파고 양수기도 자체로 마련하였다. 그러하여 겨울보다 훨씬 더 많은 210여만그루의 나무모를 튼튼하게 키워내어 백두산선군청년1호



김일성종합대학 국제학술토론회-2015가 개막되었다.



조선인민내무군 원덕소속부대 지휘관, 병사들도 새 학년도를 맞이하며 주둔지역의 초급중학교에 5대의 휴대용컴퓨터와 액정텔레비전을 비롯한 교육기자재들과 교구비품들을 마련해주었다.



인민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 주는 이런 아름다운 소행들은 당과 수령이 바라는 일이라면 한몸바쳐 해내고야마는것을 체질화하고있는 우리 인민보안원들과 조선인민내무군 군인들의 고상한 정신세계의 훌륭한 발현이다.



명심한 그들은 10점보다 넘는 양묘장을 당정책적요구에 맞게 번듯하게 꾸러놓고 꽃밭과 같이 아름답게 가꾸고있다.

선군의 총대우에 평화도 있고 민족의 번영도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이 더욱 살판치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혁명의 붉은기를 변형없이 높이 들고나가고 있는 선군조선의 강대함 힘에 대하여 다시금 절감하게 되는 이 시각 친만군인의 가슴마다에 위대한 선군혁명의 거룩한 모습이 더욱더 뜨겁게 새겨지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사상이 선군혁명사상에 의하여 우리 힘, 우리의 총대로 조국의 존엄과 인민의 자주성, 사회주의전진투쟁을 믿음직하게 지키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민족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국주의의변합세력의 무모한 반공화국압살책동이 극도에 이르렀던 지난 세기 90년대의 우리 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시련의 시기였다.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것을 기회로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의보루인 우리 공화국을 어찌 보려고 공적의 화살을 집중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혁명을 계속 전진시켜 나가는 문제는 단순히 조선혁명의 운명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주의의 운명, 인류의 자주위업의 운명과 관련된 매우 심각하고도 첨예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바로 이러한 때 우리 조국에 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총대로 개척되고 총대로 승리해온 조선혁명의 승리의 전통을 이어 총대로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옹호고수하실 결사의 각오와 의지를 안시고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드셨었다.

조미대결전은 지구상에서 《유일초대국》이라는 미국에 맞서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지키려는 선군조선의 위력을 당당히 보여주었으며 세계정세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핵무기전과방직정에서의 탈퇴에 이은 국제원자력기구에서의 탈퇴, 그 이후에 진행된 《백련》해결을 위한 조미회담과 그리행을 위한 주요협상들, 2000년 10월 위대한 장군님의 특사의 미국방문과 미국주방문의 우리 나라 방문, 2009년 8월 미국 전 대통령 클린턴의 평양방문, 2010년 8월 미국 전 대통령 카터의 우리 나라 방문 등은 우리 공화국의 선군의 위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위대한 선군정치가 있었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악랄한 반공화국책동을 짓부시고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지켜왔으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진군로를 열어놓을수 있게 되었다.

우리 공화국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로 하여 대국들의 리해관계에 따라 세계질서가 세워지고 미국식해석에 따라

정의도 부정의로 범죄되는 현실, 큰 나라에 굴종하고 아무런 대가도 치르고서라도 조국을 지켜야 할 때이다. 나는 모든것을 각오하고 이 준엄한 전진군을 모토로, 원수들과의 대결에서는 오직 사생결단의 공격만이 있을뿐이라고 함부로 말쑥하신 어버이장군님, 원수들이 칼을 빼들면 장검을 휘두르고 원수들이 총을 내대면 대포를 내대는 것은 우리 장군님의 강인대담한 기질이 배반되었다.

반세기이상 걸치는 우리 장군님의 선군혁명도사에서 파란많은 20세기 90년대로부터 21세기에 이르는 기간은 세계의 특별한 주목을 끈 나날이었다. 역사의 풍광이 어지럽게 휩쓸어 그 나날 사람들은 조선의 총대가 그것을 어떻게 길들이고 세계정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직접 보고 똑똑히 깨달았다.

조미대결전은 지구상에서 《유일초대국》이라는 미국에 맞서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지키려는 선군조선의 위력을 당당히 보여주었으며 세계정세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핵무기전과방직정에서의 탈퇴에 이은 국제원자력기구에서의 탈퇴, 그 이후에 진행된 《백련》해결을 위한 조미회담과 그리행을 위한 주요협상들, 2000년 10월 위대한 장군님의 특사의 미국방문과 미국주방문의 우리 나라 방문, 2009년 8월 미국 전 대통령 클린턴의 평양방문, 2010년 8월 미국 전 대통령 카터의 우리 나라 방문 등은 우리 공화국의 선군의 위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위대한 선군정치가 있었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악랄한 반공화국책동을 짓부시고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지켜왔으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진군로를 열어놓을수 있게 되었다.

우리 공화국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로 하여 대국들의 리해관계에 따라 세계질서가 세워지고 미국식해석에 따라

새 전쟁도발을 노린 위험천만한 책동

한반도는 한창한 미국이 제 죽을줄 모르고 미혹하게 날뛰고있다. 추종세력들에게 첨단무장장비들을 넘겨주고있는가 하면 조선반도주변에 각종 전쟁수단들을 대대적으로 배치하고있다.

최근 미국무성은 이시스전투체계와 현대적인 잠수함잠수정비밀시술을 일본에 판매하려는 독트레 마린 군수제정회의 계획을 승인해주었다. 20세기에 전범국으로 확인된 섬나라를 조선 및 아시아지역으로 내몰아 21세기의 전범국으로 또다시 전락시켜보려는 흉악한 술책이다.

미국외의 최후의력을 받아 넘겨주게 될 이시스전투체계와 관련장비는 일본의 새로운 유도미사일구축함 2척에 설치된다. 그렇게 되면 일본은 탄도미사일방어가 가능한 8척의 이시스함을 보유하게 된다.

상전이 넘겨준 첨단무기들을 장비하게 되면 가족이나 역사기록에 매달리며 일제의 침략행위를 미화분식하고있는 일본이 민중이 속에서 울라간듯 더욱 우쭐거리며 조선체제를 위해 분별없이 날뛰는 불보듯 멍해진다.

미국은 일본뿐아니라 남조선에도 막대한 액수의 전쟁장비들을 넘겨주려 하고있다.

얼마전에 미국무성은 《원투기성능개발사업》의 관리를 내건 남조선에 25억US\$에 달하는 무장장비들을 판매하도록 승인해주었다.

한편 미국은 《P-35B》전투기를 2017년에 일본의 이와구라기지로 이동하게 될 미해병대의 한 부대에 처음으로 실전배치하려 하고있으며 팔도에 있던 무전정찰기 《글로브 호크》 4대를 일본 아오모리현 미사와미군기지에 이동 배치하려 하고있다.

미국의 이러한 책동들은 조선반도주변을 저들의 전지구적인 미사일방위체계완성을 위한 전초기지로 만들려는 한편 새 전쟁도발에 필요한 첨단무기들을 전진배치하여 우리에게 대한 군사적 압력과 위협의 도수를 가중시키려는데 목적이 있다.

지금 우리 공화국의 정치군사적, 경제적잠재력은 날로 강화되고 그 종합적위력이 힘있게 파시되고있다.

올해 들어 우리 나라의 군사, 경제분야에서 이룩되고있는 놀라운 성과들은 우리 당의 명

진로선이 얼마나 우월하며 정당했었인가를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그로 하여 미국의 대조선적대정책은 총파산의 나락에 깊숙이 빠져들고있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정책은 본질에 있어서 대결정적이며 전쟁정책이다.

우리의 사상정신적대결에서 전혀 패산이 없었던것을 알고있는 미국은 군사기술적우세로써 우리를 압박하여 굴복시켜보려고 어리석게 책책하고있다.

다음으로 미국은 힘의 우위에 섰다고 판단되는 순간에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해보려 하고있다.

오늘의 조선반도정세 그것을 보여주었다.

지금 미국은 남조선과 야합하여 우리의 코앞에서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고있다. 이 전쟁수동에 방대한 미군부력과 핵선제타격수단들이 투입되었다.

일본과 팔도, 하와이 등 태평양지역에 전개된 미군부대 도입의 시각에 조선반도에 진입하려고 출진태세를 갖추어놓고있다.

이런 속에서 미국은 남조선군부조원정찰을 우리에게 대한 공명연도 도발에도 내몰고있다.

현실은 미국이 전쟁수수들에게 첨단무장장비들을 넘겨주려 하고 조선반도주변에 무력을 증강할수록 조선반도정세의 긴장상태는 더욱 악화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이 엄중히 위협당한다는 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전쟁은 파괴하고 일어나지 않는다. 예측할수 있는것은 미국이 무력증강에 매여달릴수록 그에 비례하여 전쟁발발위험도 커진다는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새 전쟁도발책동에 대해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것이다.

리 경 수

자유투표투명을 위한 배후 민족독립운동과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대 배후위원회가 미국과 남조선피괴당국의 반공화국정치군사적도발을 규탄하여 23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최근 남조선호전세력이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서 있는 《지회복합》사건을 억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연결시켜 대결분위기를 격화시키고 반공화국정치군사적도발을 세계적으로 조선반도에 연이어 전개되어 버리고 있는 일촉즉발의 엄중한 정세에 조성되었다.

이번 사태는 미국과 야합한 남조선호전세력이 북남관계를 악화시키고 침략전쟁도발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해 조작해낸 《지회복합》사건이라는 자작극에 의하여 비롯되었다.

조선반도에 누가 진정으로 평화를 원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였는가 하는것은 련사구 증명해주고있다.

조선은 북과 남으로 분열시키고 반공화국침략전쟁을 일으키는 끊임없이 벌려면서 조선반도정세를 격화시켜온 장본인은 다음이던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이다.

조선인민은 평화에 호적인 인민이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평화에 호적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여 조선반도정세를 전쟁경계로 몰아가는 행위를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우리는 미제와 남조선호전세력의 도발행위를 규탄하고 즉시 중지시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적주체와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할것을 유언과 세계 진보적인민들, 평화에 호적국에 호소한다.

별가리아의 정당, 단체가 미국과 남조선피괴당국의 반공화국도발행위를 짓부시기 위한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여 22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별가리아공산주의자동맹은 미제와 남조선피괴당에 의하여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정세가 조성됨에 대해 커다란 우려를 표시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반도정세가 이처럼 전쟁경계로 치닫게 된다는 조선인

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일관된 입장을 지켜오고 있다. 그러나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조국을 지켜야 할 때이다. 나는 모든것을 각오하고 이 준엄한 전진군을 모토로, 원수들과의 대결에서는 오직 사생결단의 공격만이 있을뿐이라고 함부로 말쑥하신 어버이장군님, 원수들이 칼을 빼들면 장검을 휘두르고 원수들이 총을 내대면 대포를 내대는 것은 우리 장군님의 강인대담한 기질이 배반되었다.

반세기이상 걸치는 우리 장군님의 선군혁명도사에서 파란많은 20세기 90년대로부터 21세기에 이르는 기간은 세계의 특별한 주목을 끈 나날이었다. 역사의 풍광이 어지럽게 휩쓸어 그 나날 사람들은 조선의 총대가 그것을 어떻게 길들이고 세계정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직접 보고 똑똑히 깨달았다.

조미대결전은 지구상에서 《유일초대국》이라는 미국에 맞서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지키려는 선군조선의 위력을 당당히 보여주었으며 세계정세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핵무기전과방직정에서의 탈퇴에 이은 국제원자력기구에서의 탈퇴, 그 이후에 진행된 《백련》해결을 위한 조미회담과 그리행을 위한 주요협상들, 2000년 10월 위대한 장군님의 특사의 미국방문과 미국주방문의 우리 나라 방문, 2009년 8월 미국 전 대통령 클린턴의 평양방문, 2010년 8월 미국 전 대통령 카터의 우리 나라 방문 등은 우리 공화국의 선군의 위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위대한 선군정치가 있었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악랄한 반공화국책동을 짓부시고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지켜왔으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진군로를 열어놓을수 있게 되었다.

우리 공화국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로 하여 대국들의 리해관계에 따라 세계질서가 세워지고 미국식해석에 따라

제자들을 받아들일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별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소에는 2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남조선당국과 미국상정들의 무분별한 도발행위가 극히 위험한 단계에 들어섰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비무장지대가까이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있는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들은 전쟁경계로 보다 탄혹한 위급과 함께 최근 분계선지역의 주민들을 괴롭히는 비무장지대확장작업의 광란적인 울부짖음소리를 동반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경제적으로 절실시키려는 미국상정들과 남조선피괴당의 시도가 실체를 면할수 없다는것은 명백하다.

모든 《전문가》들의 억측과 판단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조선은 자립경제와 과학기술을 성과적으로 발전시키고있다.

반면 미국과 남조선피괴당은 출몰로 거둬들이고 있는 자본주의위기에 더욱 깊이 빠져들고

있다. 전쟁의 불을 줄기는것은 남조선피괴당과 미국상정들에게 있어서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그들은 60여년전 일본식민지통치로부터 해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에서 패배를 면치 못하였다. 오늘 날 그들 앞에는 김정일동지의 무기로 철통같이 뚫혀있으며 미국과 본토와 그 추종세력들의 명도 대포타격을 가하고 침략자들을 명망시킬수 있는 현대적인 각종 무장장비들 갖춘 불멸의 군사강국이 되었다.

우리는 남조선당국과 미국상정들의 끊임없는 도발행위들과 전쟁경계유지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들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한다. 그들은 이러한 행위들의 후과들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것이다. 더 늦기 전에 정신을 차려라! 그들의 리해관계에 부합된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에 호적국이며 평화를 위한 최대의 인내와 자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참을성에도 한계

가 있다.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며 조선반도에서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조치들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나이지리아아제정인사들이 남조선피괴당국의 반공화국정치군사적도발행위를 규탄하여 담화를 발표하였다.

나이지리아인민전보당 전국위원장인 신시리엔한 전국총장자 다미안 오그본나는 22일 남조선피괴당국의 무모한 정치군사적도발로 조선반도에 또다시 전쟁위험이 조성됨에 대하여 격분과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평화를 사랑하는 조선인민은 악의에 찬서 비방수행하든 못하든 그들의 정치적관행에 정성을 차려라! 그들의 리해관계에 부합된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에 호적국이며 평화를 위한 최대의 인내와 자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참을성에도 한계

로운 연합회에 받아들일수 있는 현 사태의 엄중성을 똑바로 인식하여야 한다. 미국도 남의 땅에서 전쟁연습을 벌이는 위험한 행위를 더이상 벌려놓지 않아야 할것이다.

나는 나이지리아인민전보당과 신시리엔한을 대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평화와 안전이 엄중히 위협당한다는 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전쟁은 파괴하고 일어나지 않는다. 예측할수 있는것은 미국이 무력증강에 매여달릴수록 그에 비례하여 전쟁발발위험도 커진다는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새 전쟁도발책동에 대해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것이다.

리 경 수

조선반도정세를 전쟁경계로 몰아가는 엄중한 행위

여러 나라 정당, 단체 들 성명과 담화 발표

조선인민은 평화에 호적인 인민이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평화에 호적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여 조선반도정세를 전쟁경계로 몰아가는 행위를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우리는 미제와 남조선호전세력의 도발행위를 규탄하고 즉시 중지시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적주체와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할것을 유언과 세계 진보적인민들, 평화에 호적국에 호소한다.

별가리아의 정당, 단체가 미국과 남조선피괴당국의 반공화국도발행위를 짓부시기 위한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여 22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별가리아공산주의자동맹은 미제와 남조선피괴당에 의하여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정세가 조성됨에 대해 커다란 우려를 표시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반도정세가 이처럼 전쟁경계로 치닫게 된다는 조선인

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일관된 입장을 지켜오고 있다. 그러나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조국을 지켜야 할 때이다. 나는 모든것을 각오하고 이 준엄한 전진군을 모토로, 원수들과의 대결에서는 오직 사생결단의 공격만이 있을뿐이라고 함부로 말쑥하신 어버이장군님, 원수들이 칼을 빼들면 장검을 휘두르고 원수들이 총을 내대면 대포를 내대는 것은 우리 장군님의 강인대담한 기질이 배반되었다.

반세기이상 걸치는 우리 장군님의 선군혁명도사에서 파란많은 20세기 90년대로부터 21세기에 이르는 기간은 세계의 특별한 주목을 끈 나날이었다. 역사의 풍광이 어지럽게 휩쓸어 그 나날 사람들은 조선의 총대가 그것을 어떻게 길들이고 세계정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직접 보고 똑똑히 깨달았다.

조미대결전은 지구상에서 《유일초대국》이라는 미국에 맞서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지키려는 선군조선의 위력을 당당히 보여주었으며 세계정세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핵무기전과방직정에서의 탈퇴에 이은 국제원자력기구에서의 탈퇴, 그 이후에 진행된 《백련》해결을 위한 조미회담과 그리행을 위한 주요협상들, 2000년 10월 위대한 장군님의 특사의 미국방문과 미국주방문의 우리 나라 방문, 2009년 8월 미국 전 대통령 클린턴의 평양방문, 2010년 8월 미국 전 대통령 카터의 우리 나라 방문 등은 우리 공화국의 선군의 위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위대한 선군정치가 있었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악랄한 반공화국책동을 짓부시고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지켜왔으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진군로를 열어놓을수 있게 되었다.

우리 공화국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로 하여 대국들의 리해관계에 따라 세계질서가 세워지고 미국식해석에 따라

제자들을 받아들일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별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소에는 2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남조선당국과 미국상정들의 무분별한 도발행위가 극히 위험한 단계에 들어섰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비무장지대가까이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있는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들은 전쟁경계로 보다 탄혹한 위급과 함께 최근 분계선지역의 주민들을 괴롭히는 비무장지대확장작업의 광란적인 울부짖음소리를 동반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경제적으로 절실시키려는 미국상정들과 남조선피괴당의 시도가 실체를 면할수 없다는것은 명백하다.

모든 《전문가》들의 억측과 판단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조선은 자립경제와 과학기술을 성과적으로 발전시키고있다.

반면 미국과 남조선피괴당은 출몰로 거둬들이고 있는 자본주의위기에 더욱 깊이 빠져들고

있다. 전쟁의 불을 줄기는것은 남조선피괴당과 미국상정들에게 있어서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그들은 60여년전 일본식민지통치로부터 해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에서 패배를 면치 못하였다. 오늘 날 그들 앞에는 김정일동지의 무기로 철통같이 뚫혀있으며 미국과 본토와 그 추종세력들의 명도 대포타격을 가하고 침략자들을 명망시킬수 있는 현대적인 각종 무장장비들 갖춘 불멸의 군사강국이 되었다.

우리는 남조선당국과 미국상정들의 끊임없는 도발행위들과 전쟁경계유지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들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한다. 그들은 이러한 행위들의 후과들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것이다. 더 늦기 전에 정신을 차려라! 그들의 리해관계에 부합된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에 호적국이며 평화를 위한 최대의 인내와 자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참을성에도 한계

가 있다.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며 조선반도에서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조치들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나이지리아아제정인사들이 남조선피괴당국의 반공화국정치군사적도발행위를 규탄하여 담화를 발표하였다.

나이지리아인민전보당 전국위원장인 신시리엔한 전국총장자 다미안 오그본나는 22일 남조선피괴당국의 무모한 정치군사적도발로 조선반도에 또다시 전쟁위험이 조성됨에 대하여 격분과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평화를 사랑하는 조선인민은 악의에 찬서 비방수행하든 못하든 그들의 정치적관행에 정성을 차려라! 그들의 리해관계에 부합된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에 호적국이며 평화를 위한 최대의 인내와 자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참을성에도 한계

로운 연합회에 받아들일수 있는 현 사태의 엄중성을 똑바로 인식하여야 한다. 미국도 남의 땅에서 전쟁연습을 벌이는 위험한 행위를 더이상 벌려놓지 않아야 할것이다.

나는 나이지리아인민전보당과 신시리엔한을 대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평화와 안전이 엄중히 위협당한다는 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전쟁은 파괴하고 일어나지 않는다. 예측할수 있는것은 미국이 무력증강에 매여달릴수록 그에 비례하여 전쟁발발위험도 커진다는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새 전쟁도발책동에 대해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것이다.

리 경 수

로운 연합회에 받아들일수 있는 현 사태의 엄중성을 똑바로 인식하여야 한다. 미국도 남의 땅에서 전쟁연습을 벌이는 위험한 행위를 더이상 벌려놓지 않아야 할것이다.

나는 나이지리아인민전보당과 신시리엔한을 대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평화와 안전이 엄중히 위협당한다는 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전쟁은 파괴하고 일어나지 않는다. 예측할수 있는것은 미국이 무력증강에 매여달릴수록 그에 비례하여 전쟁발발위험도 커진다는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새 전쟁도발책동에 대해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것이다.

리 경 수

로씨야신문 《데자비제마야가제파》 24일 부는 전 미국무장관 키신저가 로씨야연방을 방문하는것이 오늘 미국의 목표라고 실로탄탄대대 폭

로씨야는 신문을 키신저가 자국의 한 대외정책출판물과의 회견에서 《오늘 미국의 목표는 로씨야를 붕괴시키는것이다》라고 뇌물하며 이에 대해 그 출판물을 주권이라는자 더 정

이것은 일본해군수송선 《우기시마마루》에 있던 피해생존자들의 회담담의 일면이다. 《우기시마마루》복합사건은 철두철미 일체의 조선인화살계 획에 따라 조작된 고의적인 집단살륙범죄사건이다.

페망직은 일본의 한행의 조선사람이라도 더 많이 죽이는것으로 세 피망의 앙갚음을 하려 하였다. 이에 따라 제2차대전 일본은 장도들은 세상에서 잊어지지 못한 《우기시마마루》복합사건과 같은 조선인수장사건을 조작하였던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을 기피복합에 의한 《불가피한 사고》로 의곡함으로써 그 진상을 영원히 비밀로 묻어버리고자 하였다. 일본사람들은 배의 침몰로 죽은 사람들의 정확한 수자와 그리고 죽고, 성명을 확인하려고도 하지 않았으며 지어 그 수자를 엉겁구레 줄여서 발표하였다.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는 수천명의 조선사람들이 탄 배를 바다안쪽에서 폭발시켜 집단수장사건은 국한한 살인마담만이 할수 있는것이다.

조국해방의 기쁨으로 그렇게 가슴들먹던 조선사람들은 인간의 탈을 쓴 살인마담들에 의해 조국땅을 보지도 못하고 생생육을 당하고말았다.

세월이 흐르고 세월이 바뀌었

로씨야신문 《데자비제마야가제파》 24일 부는 전 미국무장관 키신저가 로씨야연방을 방문하는것이 오늘 미국의 목표라고 실로탄탄대대 폭

로씨야는 신문을 키신저가 자국의 한 대외정책출판물과의 회견에서 《오늘 미국의 목표는 로씨야를 붕괴시키는것이다》라고 뇌물하며 이에 대해 그 출판물을 주권이라는자 더 정

이것은 일본해군수송선 《우기시마마루》에 있던 피해생존자들의 회담담의 일면이다. 《우기시마마루》복합사건은 철두철미 일체의 조선인화살계 획에 따라 조작된 고의적인 집단살륙범죄사건이다.

페망직은 일본의 한행의 조선사람이라도 더 많이 죽이는것으로 세 피망의 앙갚음을 하려 하였다. 이에 따라 제2차대전 일본은 장도들은 세상에서 잊어지지 못한 《우기시마마루》복합사건과 같은 조선인수장사건을 조작하였던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을 기피복합에 의한 《불가피한 사고》로 의곡함으로써 그 진상을 영원히 비밀로 묻어버리고자 하였다. 일본사람들은 배의 침몰로 죽은 사람들의 정확한 수자와 그리고 죽고, 성명을 확인하려고도 하지 않았으며 지어 그 수자를 엉겁구레 줄여서 발표하였다.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는 수천명의 조선사람들이 탄 배를 바다안쪽에서 폭발시켜 집단수장사건은 국한한 살인마담만이 할수 있는것이다.

조국해방의 기쁨으로 그렇게 가슴들먹던 조선사람들은 인간의 탈을 쓴 살인마담들에 의해 조국땅을 보지도 못하고 생생육을 당하고말았다.

세월이 흐르고 세월이 바뀌었

로씨야신문 《데자비제마야가제파》 24일 부는 전 미국무장관 키신저가 로씨야연방을 방문하는것이 오늘 미국의 목표라고 실로탄탄대대 폭

로씨야는 신문을 키신저가 자국의 한 대외정책출판물과의 회견에서 《오늘 미국의 목표는 로씨야를 붕괴시키는것이다》라고 뇌물하며 이에 대해 그 출판물을 주권이라는자 더 정

이것은 일본해군수송선 《우기시마마루》에 있던 피해생존자들의 회담담의 일면이다. 《우기시마마루》복합사건은 철두철미 일체의 조선인화살계 획에 따라 조작된 고의적인 집단살륙범죄사건이다.

페망직은 일본의 한행의 조선사람이라도 더 많이 죽이는것으로 세 피망의 앙갚음을 하려 하였다. 이에 따라 제2차대전 일본은 장도들은 세상에서 잊어지지 못한 《우기시마마루》복합사건과 같은 조선인수장사건을 조작하였던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을 기피복합에 의한 《불가피한 사고》로 의곡함으로써 그 진상을 영원히 비밀로 묻어버리고자 하였다. 일본사람들은 배의 침몰로 죽은 사람들의 정확한 수자와 그리고 죽고, 성명을 확인하려고도 하지 않았으며 지어 그 수자를 엉겁구레 줄여서 발표하였다.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는 수천명의 조선사람들이 탄 배를 바다안쪽에서 폭발시켜 집단수장사건은 국한한 살인마담만이 할수 있는것이다.

조국해방의 기쁨으로 그렇게 가슴들먹던 조선사람들은 인간의 탈을 쓴 살인마담들에 의해 조국땅을 보지도 못하고 생생육을 당하고말았다.

세월이 흐르고 세월이 바뀌었

로씨야신문 《데자비제마야가제파》 24일 부는 전 미국무장관 키신저가 로씨야연방을 방문하는것이 오늘 미국의 목표라고 실로탄탄대대 폭

로씨야는 신문을 키신저가 자국의 한 대외정책출판물과의 회견에서 《오늘 미국의 목표는 로씨야를 붕괴시키는것이다》라고 뇌물하며 이에 대해 그 출판물을 주권이라는자 더 정

이것은 일본해군수송선 《우기시마마루》에 있던 피해생존자들의 회담담의 일면이다. 《우기시마마루》복합사건은 철두철미 일체의 조선인화살계 획에 따라 조작된 고의적인 집단살륙범죄사건이다.

페망직은 일본의 한행의 조선사람이라도 더 많이 죽이는것으로 세 피망의 앙갚음을 하려 하였다. 이에 따라 제2차대전 일본은 장도들은 세상에서 잊어지지 못한 《우기시마마루》복합사건과 같은 조선인수장사건을 조작하였던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을 기피복합에 의한 《불가피한 사고》로 의곡함으로써 그 진상을 영원히 비밀로 묻어버리고자 하였다. 일본사람들은 배의 침몰로 죽은 사람들의 정확한 수자와 그리고 죽고, 성명을 확인하려고도 하지 않았으며 지어 그 수자를 엉겁구레 줄여서 발표하였다.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는 수천명의 조선사람들이 탄 배를 바다안쪽에서 폭발시켜 집단수장사건은 국한한 살인마담만이 할수 있는것이다.

조국해방의 기쁨으로 그렇게 가슴들먹던 조선사람들은 인간의 탈을 쓴 살인마담들에 의해 조국땅을 보지도 못하고 생생육을 당하고말았다.

세월이 흐르고 세월이 바뀌었

로씨야신문 《데자비제마야가제파》 24일 부는 전 미국무장관 키신저가 로씨야연방을 방문하는것이 오늘 미국의 목표라고 실로탄탄대대 폭

로씨야는 신문을 키신저가 자국의 한 대외정책출판물과의 회견에서 《오늘 미국의 목표는 로씨야를 붕괴시키는것이다》라고 뇌물하며 이에 대해 그 출판물을 주권이라는자 더 정

이것은 일본해군수송선 《우기시마마루》에 있던 피해생존자들의 회담담의 일면이다. 《우기시마마루》복합사건은 철두철미 일체의 조선인화살계 획에 따라 조작된 고의적인 집단살륙범죄사건이다.

페망직은 일본의 한행의 조선사람이라도 더 많이 죽이는것으로 세 피망의 앙갚음을 하려 하였다. 이에 따라 제2차대전 일본은 장도들은 세상에서 잊어지지 못한 《우기시마마루》복합사건과 같은 조선인수장사건을 조작하였던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을 기피복합에 의한 《불가피한 사고》로 의곡함으로써 그 진상을 영원히 비밀로 묻어버리고자 하였다. 일본사람들은 배의 침몰로 죽은 사람들의 정확한 수자와 그리고 죽고, 성명을 확인하려고도 하지 않았으며 지어 그 수자를 엉겁구레 줄여서 발표하였다.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는 수천명의 조선사람들이 탄 배를 바다안쪽에서 폭발시켜 집단수장사건은 국한한 살인마담만이 할수 있는것이다.

조국해방의 기쁨으로 그렇게 가슴들먹던 조선사람들은 인간의 탈을 쓴 살인마담들에 의해 조국땅을 보지도 못하고 생생육을 당하고말았다.

세월이 흐르고 세월이 바뀌었

로씨야신문 《데자비제마야가제파》 24일 부는 전 미국무장관 키신저가 로씨야연방을 방문하는것이 오늘 미국의 목표라고 실로탄탄대대 폭

로씨야는 신문을 키신저가 자국의 한 대외정책출판물과의 회견에서 《오늘 미국의 목표는 로씨야를 붕괴시키는것이다》라고 뇌물하며 이에 대해 그 출판물을 주권이라는자 더 정

이것은 일본해군수송선 《우기시마마루》에 있던 피해생존자들의 회담담의 일면이다. 《우기시마마루》복합사건은 철두철미 일체의 조선인화살계 획에 따라 조작된 고의적인 집단살륙범죄사건이다.

페망직은 일본의 한행의 조선사람이라도 더 많이 죽이는것으로 세 피망의 앙갚음을 하려 하였다. 이에 따라 제2차대전 일본은 장도들은 세상에서 잊어지지 못한 《우기시마마루》복합사건과 같은 조선인수장사건을 조작하였던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을 기피복합에 의한 《불가피한 사고》로 의곡함으로써 그 진상을 영원히 비밀로 묻어버리고자 하였다. 일본사람들은 배의 침몰로 죽은 사람들의 정확한 수자와 그리고 죽고, 성명을 확인하려고도 하지 않았으며 지어 그 수자를 엉겁구레 줄여서 발표하였다.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는 수천명의 조선사람들이 탄 배를 바다안쪽에서 폭발시켜 집단수장사건은 국한한 살인마담만이 할수 있는것이다.

조국해방의 기쁨으로 그렇게 가슴들먹던 조선사람들은 인간의 탈을 쓴 살인마담들에 의해 조국땅을 보지도 못하고 생생육을 당하고말았다.

세월이 흐르고 세월이 바뀌었

로씨야신문 《데자비제마야가제파》 24일 부는 전 미국무장관 키신저가 로씨야연방을 방문하는것이 오늘 미국의 목표라고 실로탄탄대대 폭

로씨야는 신문을 키신저가 자국의 한 대외정책출판물과의 회견에서 《오늘 미국의 목표는 로씨야를 붕괴시키는것이다》라고 뇌물하며 이에 대해 그 출판물을 주권이라는자 더 정

이것은 일본해군수송선 《우기시마마루》에 있던 피해생존자들의 회담담의 일면이다. 《우기시마마루》복합사건은 철두철미 일체의 조선인화살계 획에 따라 조작된 고의적인 집단살륙범죄사건이다.

페망직은 일본의 한행의 조선사람이라도 더 많이 죽이는것으로 세 피망의 앙갚음을 하려 하였다. 이에 따라 제2차대전 일본은 장도들은 세상에서 잊어지지 못한 《우기시마마루》복합사건과 같은 조선인수장사건을 조작하였던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을 기피복합에 의한 《불가피한 사고》로 의곡함으로써 그 진상을 영원히 비밀로 묻어버리고자 하였다. 일본사람들은 배의 침몰로 죽은 사람들의 정확한 수자와 그리고 죽고, 성명을 확인하려고도 하지 않았으며 지어 그 수자를 엉겁구레 줄여서 발표하였다.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는 수천명의 조선사람들이 탄 배를 바다안쪽에서 폭발시켜 집단수장사건은 국한한 살인마담만이 할수 있는것이다.

조국해방의 기쁨으로 그렇게 가슴들먹던 조선사람들은 인간의 탈을 쓴 살인마담들에 의해 조국땅을 보지도 못하고 생생육을 당하고말았다.

세월이 흐르고 세월이 바뀌었